

최경주 12위 박세리 5위

프로골프 세계 랭킹

한국 남녀 프로골프 간판 스타인 최경주(37·나이키골프)와 박세리(30·CJ)의 세계 랭킹이 각각 개인 최고 순위에 올랐다.

최경주는 17일 발표된 주간 남자프로골프 세계랭킹에서 지난 주 13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12위로 올라섰다.

지난 주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최경주는 12위였던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가 유럽프로골프 스페인오픈에서 공동19위에 그치면서 랭킹포인트를 까먹은 덕에 순위가 바뀌었다.

최경주는 19일 개막하는 브리티시오픈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하면 꿈에 그리던 세계 '톱10'에 입상도 가능해졌다.

13개월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박세리는 17일 주간 랭킹에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카리 웹(호주),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크리스티 커(미국)에 이어 5위에 올랐다.

박세리는 지난해 2월 여자프로골프 세계 랭킹이 처음 도입됐을 때 90위에 그쳤으나 작년 맥도널드LPGA챔피언십 우승으로 한꺼번에 91 계단을 끌어 올려 19위까지 올라섰고 지난 주에는 8위였다.



타이거 우즈가 17일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2007 브리티시 오픈골프대회 연습라운딩 12번홀에서 티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주 136번째 챔피언 될까?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브리티시오픈골프대회가 19일(한국시간) 오후 스코틀랜드 커누스티골프링크스(파71·7천421야드)에서 4일간의 열전에 돌입, 136번째 챔피언을 향한 도전이 시작된다. 영국왕립골프협회(R&A)가 주관하는 브리티시오픈의 공식 대회 명칭은 '디 오픈(The Open)'이다. 세상에서 단 하나 뿐인 오픈대회라는 뜻이다.

세계서 가장 오래된 브리티시 오픈 골프 내일 개막 거친 러프·변덕 날씨 등 '코스·자연과 싸움' 변수로

1860년 첫 대회를 연 브리티시오픈은 147년 동안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탓에 12차례 걸렸을 뿐 전통을 이어 오면서 올해 136번째 챔피언 탄생의 기다리고 있다.

미국프로골프(PGA), 유럽프로골프(EPGA) 등 양대 투어 대회를 겸하고 있으며 PGA 투어에서는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

브리티시오픈은 늘 황량한 황무지에 조성한 링크스코스에서 열린다. 인공적인 조경이 거의 배제된 링크스코스는 거친 러프, 딱딱한 페어웨이와 그린, 그리고 변화무쌍한 거센 바다 바람과 변덕 날씨 등이 특징이다. '코스와 싸움'을 넘어 선수들은 거친 '자연과 싸움'을 이겨내야만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클래드 저그'를 차지할 수 있다.

이번 대회가 열리는 커누스티링크스는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골프 코스'라는 명성을 얻은 난코스 가운데 난코스다. 이미 다섯차례 브리티시오픈에서 드러난 커누스티의 악명은 가장 최근 대회인 1999년을 겪은 선수들에게는 '악몽'이나 다름없다.

페어웨이 폭이 가장 넓은 곳이라야 28야드에 불과하고 좁은 곳은 18야드 밖에 안된다. 페어웨이를 벗어나면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친 잡초가 덮여 있고 페어웨이 곳곳에 깊은 함자리 벙커가 도사리고 있다.

연습 라운드를 돌아본 선수들은 코스뿐 아니라 변덕 날씨에도 잔뜩 겁을 집어먹었다. 오전에는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

아지더니 오후에는 강한 햇볕에 시달려야 했다. 비가 올 때와 햇볕이 비칠 때 코스 컨디션은 전혀 판판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수시로 바뀌는 바람도 선수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런 '난코스'와 '싸움'에 나서는 156명의 선수 명단에 다섯명의 한국인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메이저대회 사상 가장 많은 한국 선수가 나서는 것이다.

올해 특급대회에서만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랭킹 12위에 올라 있는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는 이제 유력한 우승 후보 가운데 한명이다.

PGA 투어 멤버가 되기도 전인 1998년, 1999년에 2년 연속 출전한 데 이어 2002년부터 6년 연속 이 대회를 모습을 드러내 이번이 벌써 8번째다.

2004년 대회 때는 공동 16위에 올라 한국 골프의 브리티시오픈 47년 도전 사상 최고 성적을 올리기도 했다.

최경주는 19일 오후 3시36분 리처드 스톤, 데이비드 하웰과 함께 티오프한다.

유럽프로골프투어를 주무대로 삼고 있는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과 일본프로골프투어 미즈노오픈 우승으로 출전권을 받은 이동환(20·고려대), 그리고 이승호(21·투어스테이지)와 '장타 천년' 이원준(22·LG전자) 등 '영건'들이 최경주의 뒤를 받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아마추어 볼러들 큰 잔치

벨인퍼컴 사장배 볼링 23일부터 예선

아마추어 볼러들의 큰잔치 제4회 벨인퍼컴 사장배 남·여볼링대회가 광주, 전남·북 일원에서 개최된다.

광주광역시 볼링협회와 전남·전북볼링협회 주관, 광주일보사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700여명의 아마추어 볼러들이 참가, 지난 14일~ 8월 19일까지 한 달여 동안 실력을 겨루게 된다.

볼링을 즐기는 전라남·북도, 광주 거주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벨인퍼컴 사장배 볼링대회는 예선 통과자 108명을 선발, 오는 8월 18일 광주시 북구 테관볼링장에서 결승전을 갖고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예선전은 1조 3개입으로 시행하며 준결승은 8월 19일 오전 10시~오후 1시, 결승전은 준결승 직후 곧바로 6개입 합산으로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여자선수는 예선전에 40점, 준결승 50점, 결승에는 70점을 가산해 주고, 55세 이상 남·녀는 게임당 5점을 가산해준다.

예선 경기는 광주, 전남, 전북 지정 볼링장에서 열린다.

광주 예선 경기장은 북구 테관볼링장(7월 23일, 8월 18일), 하남 볼링장, 연아 볼링장(8월 14일), 오케라 볼링장(8월 12일), ABC볼링장(8월 5일)이다.

전남 예선은 순천 퍼펙트 볼링장(19일), 영광 볼링장(29일), 목포 볼링장(24일), 강진 AMF볼링장(5일), 곡성 심청볼링장(8월 5일), 광양동광양볼링장(8월 12일)에서 열린다.

전라북도 예선은 전주 신광볼링장(28일), 신대인 한양볼링장(29일), 봉동 현대볼링장(8월 4일), 익산 한성볼링장(8월 5일), 군산 코리아나볼링장(8월 11일)이다.

1위는 트로피와 훈련보조금 200만원의 수여되며 2위는 120만원, 3위는 80만원의 훈련보조금이 지급된다.

조종국(48) 한국실업볼링연맹 회장은 "매년 대회가 거듭될 수록 광주·전남·북 아마추어 볼러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대회가 치러지고 있다"며 "광주·전남 볼링의 저변확대를 위해 보다 내실 있는 대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형택 2회전 진출

이형택(세계랭킹 42위·삼성증권)이 총상금 52만5천달러가 걸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컨트리와이드 클래식에서 단식 2회전에 진출했다.

이형택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UCLA 테니스센터에서 벌어진 1회전에서 여러 대회 복식에서 손발을 맞춘 재미동포 케빈 김(143위)을 2-0(6-3 6-2)으로 누르고 16강에 올랐다.

8일 끝난 최고 권위의 윌블던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단식 3회전 무대를 밟았던 이형택은 하드 코트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8월28일부터 열리는 마지막 메이저대회 US오픈을 준비한다.

김병현 시즌 5패

김병현(28·플로리다 말린스)이 후반기 첫 등판에서 제구력 난조로 시즌 5패제를 당했다.

김병현은 17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돌핀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홈런 2개 포함 안타 8개를 맞고 4점을 준 뒤 2-4로 뒤진 7회 무사 만루에서 좌투수 테일러 랭커슬리로 교체됐다.



지난해 열린 제3회 벨인퍼컴 사장배 볼링대회에서 선수들이 힘차게 투구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choi@kwangju.co.kr



(18일)

▲2007 삼성컵 축구 월드컵(첼시: 수원삼성)(11: 50·MBC)

▲2007 메이저리그<토론토: 뉴욕Y>(07: 55·Xports)

▲2007 국제사이클대회(14: 10·KBS 1)

▲2007 프로야구 퓨처스 올스타전(조마: 일구회)<남부: 북부>(16: 30·

KBS N SPORTS)

▲2007 일본프로야구<한신: 요미우리>(18: 00·MBC ESPN)

▲2007 아시안컵 축구대회<한국: 인도네시아>(19: 30·MBC·SBS스포츠·X-ports)

▲2007 아시안컵<우즈베키스탄: 중국>(21: 25·SBS스포츠)

(19일)

▲2007 메이저리그<디트로이트: 미네소타>(07: 55·Xports)

▲FIFA U20 월드컵 2007 4강전(08: 35·SBS스포츠)

Advertisement for Yuhemod (유헤모드) featuring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grid of images showing different services and a large phone number: 02-2639-9771-2/6974-4611/010-2833-8714.

Advertisement for SK Telecom (SK 텔레콤) featuring a couple and the number 00700. Includes details about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1596-2488, 070-7427-8201.